

# 2024 August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7월 동향

미국 주요 물가 지표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인 가운데 파월 의장의 도비시한 의회 연설과 국내 경기 활력 약화 등을 고려한 시장 기대 등으로 3년 국고채 금리는 2.9%대까지 하락 시현

국내 물가 지표 상승세 둔화 속 미 고용지표 냉각 및 제조업 부진 등으로 국내외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

파월 의장의 인하 시점 2% 물가 도달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도비시 언급 속 미국 CPI 둔화 지속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 지속에 영향

미국 6월 PCE 결과에 따른 연준 피벗 기대 및 국내 경기 모멘텀 약화 등이 하락 영향을 미쳤으나, 한은의 시장 금리 인하 기대 차단 등이 하단 제한한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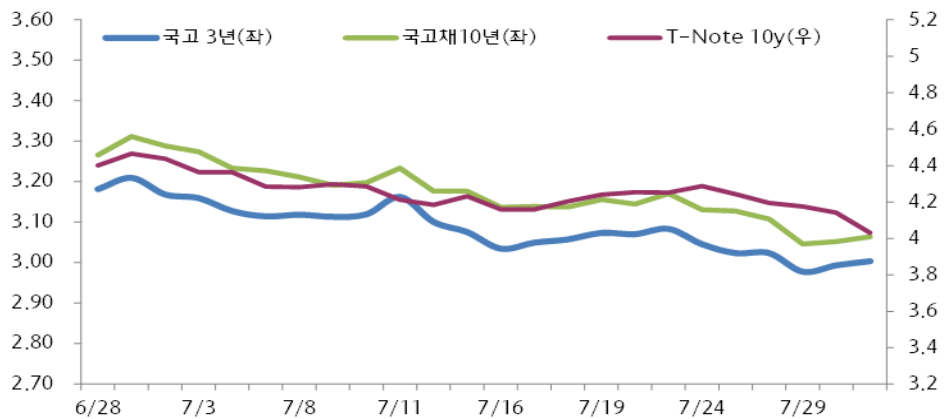
- 월초, 국내 6월 물가지표 상승세 둔화 및 연준 인플레이션 경로 긍정적 평가 등으로 하락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이어 미 고용지표 부진과 한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추세 이어진 모습
  - 월 초, 국내 6월 소비자물가지표가 전년대비 2.4% 상승에 그치며 1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미 인플레이션 경로 긍정적 평가 등으로 국내외 금리 하락 출발 흐름 시현
  - 이어, 미 6월 실업률이 4.1% 상승 속에 제조업 PMI 부진 및 한은 국회 보고 후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며 하향 추세 이어진 국면
- 중반, 시장에 대한 한은 매파적 시각에도 미 6월 CPI 감소세 둔화로 하락 유지한 국고채 금리는 이어 트럼프 피격 소식에도 긍정적 수급 영향으로 그 추세 유지. 이어 미 소매판매 개선에도 파월 의장의 도비시 의회 연설과 이에 따른 9월 인하 기대감 강화 반영하는 양상 시현
  - 중반, 7월 금통위에서 총재의 '시장이 금리인하에 너무 앞서갔다'는 평가 등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가운데 미국 6월 CPI가 월간 대비로 '20년5월 이후 처음 하락한 소식 등으로 하락 추세 유지된 국면
  - 이어 트럼프 피격 소식에도 외국인 긍정적 수급과 이어진 7.11일 파월 의장 하원 연설에서 물가 2%까지 인하 시점 기다리지 않겠다는 도비시 발언 등이 시장의 9월 금리인하 기대를 크게 강화한 국면
- 후반, 중국 기준금리 인하 영향과 미국 긍정적 국채 수급 및 2분기 국내 역성장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 이어 미 PCE 시장 예상 부합에 따른 9월 인하 기대 강화가 금리 하락 추세를 강화
  - 후반, 중국이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한 영향 반영 속에 미 재무부 국채 입찰의 강력한 수요 확인 및 국내 2분기 성장률의 전기 대비 -0.2% 역성장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유지
  - 이어 6월 미국 근원PCE 지수가 전년대비 2.5% 감소 경로 유지 속 시장 피벗 기대가 금리 급락에 영향을 미친 후, 한은 시장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금통위 의사록 경계감 등으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

### 7월 평균

국고채(3년): 3.08%

T-Note(10년): 4.25%

###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 8 월 전망

미국 경기침체 우려 속에 지정학적 요인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 미칠 가운데, FOMC 이후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된 영향 등도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 높아질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국고채(3y, %)	3.30	3.38	3.00 <sup>(F)</sup>	2.90 <sup>(F)</sup>

7월 FOMC 이후, 9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된 국면.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는 연준 스탠스를 고려할 때, 11월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

최근 재차 이슈화되는 중동 확산 리스크 및 미국 경기의 냉각이 주요하게 9월 연준 금리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에 주요 영향 미칠 전망

8월 국고채(3Y) 금리는 2.90%~3.15%

- 7월 FOMC 이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진 양상. 그럼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최근 물가와 고용 상황 고려 시, 9월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 배제해서는 안될 것으로 예상
  -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고용과 물가, 경기가 현 경로를 유지한다면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을 피력함에 따라 시장의 9월 인하 기대가 크게 강화된 국면은 국내외 금리의 큰 폭 하락 요인
  - 하지만, 2% 물가 달성과 고용 냉각이 9월까지 크게 개선되기보다는 물가지표 측면에서 이전처럼 느린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배제할 수 없을 전망. 이에 대한 연준 매파 성향 인사의 언급 등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금리 하단을 강하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와 전월 후반 이후 크게 확대된 미국 경기 둔화 영향 등이 미국채 금리 하락 속 국고채 금리에도 동 방향성에 영향 미칠 전망
  - 최근 중동 지정학적 정세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공식화 등으로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전월 후반 이후, 미국 경제에서 실업 인구 증가 속 제조업 지표가 크게 하락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측면이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준에 9월 금리인하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 기대 등으로 점진적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대내적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이 성장을 일부 제한하겠지만, 주요 부문의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이 하반기 성장 지속하게 할 전망. 여기에 국내 물가의 하반기 재차 둔화 예상에 따른 한은의 선제적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되는 측면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대내적 경제 부문에 따른 회복 속도 차이 등이 성장에 다소 부정적이겠지만, 주요 부문 수출 증가세 회복 등이 하반기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경기 측면에 대한 한은의 우려는 다소 완화된 상황
  - 반면, 국내 물가 2%대 진입 이후, 기저효과 등을 반영 주춤하는 양상이나 연말까지 목표에 점진적 수렴 가능할 전망에 따른 선제적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에 영향 미칠 전망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준의 금리인하가 시장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 상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월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 강화</li> <li>중동 이슈 재부각 상황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 확대</li> <li>국내 물가의 안정적 감소 기대 등에 따른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 강화</li> </ul>

자료: 하나은행

# 달러/원 환율

## 7월 동향

**미국 경제지표 둔화와 고용 냉각 조짐 속 연준 피벗 기대를 반영한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미 대선 리스크와 국내 증시 부진에 1,380원대 중심 레인지 장세 이어진 후 엔화 강세에 연동되며 하락 전환 마감**

미 PCE 둔화세와 경기 냉각 시그널에 달러는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트럼프 리스크와 파월 의장의 인하 시점 언급 부재 등에 달러 지지력 유지되며 환율은 1380원대 전후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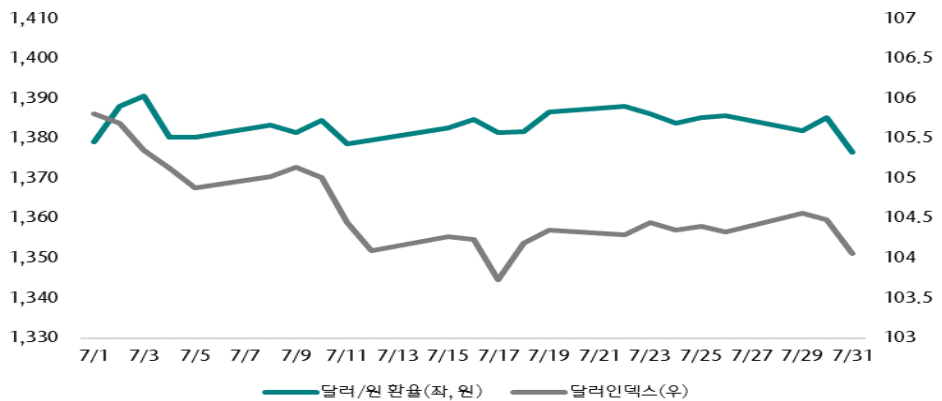
연준의 9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예상보다 매파적인 금통위는 원화 강세 보였으나 트럼프 피격 이슈와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 등에 상승 압력을 받으며 재차 반등

글로벌 IT 대란으로 인한 리스크오프 분위기와 주요 통화정책회의 전 관망심리에 1,380원대 횡보 후 BOJ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반영한 엔화 강세에 동조화되며 하락 전환 후 마감

- 월초, 미 인플레이션 둔화세와 경기 둔화 조짐에 연준 금리인하 여건 조성 기대 속 달러 약세 나타났으나 미 대선 불확실성과 파월 의장의 인하시기에 대한 언급 부재에 되돌림 양상 시현
  - 월초, 연속 둔화된 미 PCE물가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되는 측면이 달러 약세 견인했으나 미 대선 불확실성과 역외 매수세에 환율 상승 출발 후 미 서비스업 위축 등 경기 냉각 조짐에 하락 전환
  - 미 실업률 증가 등 고용 둔화 시그널에도 트럼프 리스크와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인하 시점 언급 부재로 인한 실망감 속 달러 반등한 가운데 저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 유입에 1,380원대 중후반 등락
- 월 중반, 매파 금통위와 큰 폭 둔화된 미 CPI로 인한 연준 피벗 기대 강화에 1,370원대로 하락 후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달러 강세와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되돌림 시현
  - 중반, 예상보다 매파적인 금통위 결과와 전월비 감소세 보인 미 6월 CPI에 의한 연준 9월 금리인하 전망 부상에 1,370원대로 하락했으나 트럼프 피격 이슈가 위험회피 심리와 강달러를 자극하며 상승
  - 미 소매판매 호조에 여전한 연준 피벗 기대와 트럼프의 엔-위안화 약세 비판에 달러 약세 압력 나타났으나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와 ECB 추가 금리인하 예상 속 달러 반등에 1,380원대에서 등락
- 후반, 글로벌 IT 대란과 뉴욕증시 기술주 조정 국면 속 위험회피 심리와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 앞둔 경계감에 1,380원대 등락 후 BOJ 추가 긴축 기대를 반영한 엔화 강세에 하락 마감
  - 후반, 글로벌 IT 대란 속 리스크오프 심리와 중국 인민은행 금리인하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며 상승 압력 받았으나 BOJ 금리인상 기대를 반영한 엔화 강세 흐름에 일부 동조화되며 상단 제한
  - 뉴욕증시 기술주 약세로 인한 국내 증시 외자 유출과 주요국 금리결정 앞둔 관망세에 1,380원대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였으나 BOJ 긴축 기조 강화된 데 따른 엔화 강세 영향으로 1,370원대 하락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7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83.37  
7월말 달러/원 환율 : 1,376.5



자료: 하나은행

## 8 월 전망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 강화에 따른 달러 약세 반영되겠지만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될 측면은 환율 하단 지지할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달러/원 환율(원)	1,329	1,370	1,350 <sup>(F)</sup>	1,295 <sup>(F)</sup>

파월 연준 의장의 도비시한 발언에 9월 금리인하론이 기정사실화된 점은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미 경기 냉각 우려 부각 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될 점은 환율 상방 위험 요인

BOJ 긴축 행보 속 엔화 강세 전환에 연동될 측면과 반도체 수출 회복을 통한 국내 경제 회복력 강화 등 원화 강세 요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적 불확실성 상존에 환율 하단 지지될 전망

8월 달러/원 환율  
1,355원 ~1,385원 예상

- 7월 FOMC에서 비둘기 면모를 보인 파월 의장 발언에 9월 금리인하 전망 강화됨에 따라 달러 약세 예상되나 경기 침체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산될 경우 되돌림 나타날 가능성
  - 7월 FOMC에서 금리 동결했으나 고용 냉각 리스크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한 점과 파월 의장의 9월 인하 논의 가능성 언급이 시장의 피벗 기대에 부합함에 따라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미 제조업경기와 고용지수 부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7월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확인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며 환율 상방 변동성 확대될 전망
- BOJ 금정위의 매파적 결과에 엔화 강세 나타난 반면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와 당국의 완화적 정책 기조로 인해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국면은 원화 방향성에 상충 요인으로 판단
  - BOJ 금리인상 결정과 우에다 총재의 추가 긴축 가능성 언급으로 미-일 금리차 축소 기대가 높아진 측면이 엔화의 급격한 강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이에 동조화될 가능성은 원화 강세를 지지할 요인
  - 반면,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등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 시행 등에 위안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점은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수출 호조의 긍정적 수급 영향과 금통위 매파적 기조 등 대내적 원화 강세 지지 요인에도 미 대선 불확실성과 중동 확전 우려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상존한 측면은 환율 하단 지지
  - 반도체 수출 연속 증가세에 힘입은 무역수지 흑자와 대중국 수출 호조 등이 수급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시장의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에 경계심 드러낸 금통위의 매파 스탠스는 원화 강세 지지할 전망
  - 연준 피벗 기대감에 위험선호 심리 강화될 측면 또한 원화 강세 요인이나 미 대선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대외 리스크 부각되는 시점에서 환율 상방 압력이 중대될 수 있음에 유의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자산 선호심리</li> <li>· 미 대선 리스크와 중동 분쟁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ed 9월 금리인하 기대를 반영한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험선호 분위기</li> <li>· 국내 수출 호조와 매파적 금통위 등 원화 강세 요인</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종통화

## 엔/원 전망

7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7.6

7월 엔/원 평균환율 : 878.0

8월 엔/원 예상범위 : 890~930원

**BOI 금리인상 결정 속 연준의 물가와 고용을 고려한 통화정책 상 비둘기적 기조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 등이 엔화 강세 지지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엔화 동향) 일본 정부의 1분기 GDP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엔화는 160엔선을 상회하는 등 약세 압력 받으며 출발. 중반, 예상을 하회한 미국 CPI 데이터에 강달러 압력이 완화됨과 동시에 일본 당국의 개입 추정 영향이 더해지며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 후반, BOI 긴축 기대를 선반영하며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움직임 나타나는 가운데 7월 금정위에서의 금리인상 결정에 강세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140엔대 진입 마감
- (엔/원 전망) 미국 PCE 2.5% 상승의 시장 예상 부합한 경로에 따른 9월 미 금리인하 기대 강화는 엔화 강세 지지 요인. 하지만 최근 일본내 명목 임금 상승에도 그간 엔저에 따른 물가 상승이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내수 진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그럼에도 BOI의 25bp 금리인상 결정 등이 단기 엔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여전히 내수 및 비제조업 부진 양상을 반영한 BOI 추가 긴축 기대 약화 등이 엔화 강세 제한 요인으로 판단
  - 최근 미국 6월 PCE 물가 감소 유지에 따른 9월 금리인하 기대 강화 등이 엔화 강세 지지 요인. 하지만, 그간 엔저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친 상황 등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질 전망
  - 그럼에도 전월 BOI의 추가 긴축 영향이 단기적으로 엔화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엔/원 환율은 900원대 상향에서의 움직임이 예상

## 유로/원 전망

7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844

7월 유로/원 평균환율 : 1,500.2

8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60~1,485원

**6월 금리인하의 경기회복 일부 긍정적 영향에도 여전히 제약적 금리수준은 경기 불확실성 높이는 국면. 이러한 유로존 경기 상황과 물가 하방 압력 상존 영향으로 9월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진 측면 등이 유로 약세 견인할 전망**

- (유로화 동향)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연합이 승리하며 정국 불안이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유로화는 그간의 약세 폭을 되돌리며 출발. 중반, IMF의 유로존 성장률 상향 조정과 미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연준 금리인하 기대에 강세 이어졌으나 ECB 9월 추가인하 가능성 부각되며 약세 전환. 후반, 독일 등 유럽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ECB 관계자들의 비둘기 발언에 약세 흐름 지속되는 가운데 1.08달러대 초반에서 마감
- 6월 금리 인하가 소비 회복에 일부 긍정적 영향 미쳤으나 여전히 경제에 제약적 금리수준 측면이 투자와 수출 등 경기 회복에 부정적일 전망. 다만, 최근 유로존내 임금 상승 압력 완화 등으로 물가 하방 압력 상존한 상황에서 경기 불확실성도 다소 지속할 전망에 따른 9월 ECB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이 유로 약세 견인할 것으로 보임
  - ECB의 6월 금리인하가 역내 소비 회복 등에 일부 긍정적이었지만, 추가 완화에 대한 시그널 부재 속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투자와 수출 등 경기 회복력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
  - 여기에 최근 물가 하방 압력 상존 속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이 ECB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유로 약세 견인할 가운데 유로/원은 연준 피벗 기대의 상대적 완화 강세로 1,470원 전후 등락 예상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4년 8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1 BOE 통화정책회의</b> <b>BOE 통화정책회의</b> 한 7월 수출/입(YoY +5.1%, -7.5%) 8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52) 미 2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P](QoQ +0.2%) 6월 건설지출(MoM -0.1%) 7월 Challenger Job Cuts(YoY +19.8%)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중 7월 Caixin 제조업 PMI 유 6월 실업률(6.4%), 7월 HCOB 제조업 PMI 일 7월 지분 은행 제조업 PMI[F]	<b>2 미국 고용보고서</b> 한 7월 CPI(MoM +0.2%, YoY +2.4%) CPI 근원(MoM +0.0%, YoY +2.2%) 미 6월 제조업 수주(MoM -0.5%), 내구재 주문 7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206k) 시간당 평균 임금 (MoM +0.3%, YoY +3.9%) 실업률(4.1%), 경제활동 참가율(62.6%) 호 2Q PPI (YoY 4.3%)	<b>3</b>
<b>4</b>	<b>5</b> <b>BOJ 6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b> 미 7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고용, 신규 주문 중 7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 유 6월 PPI(MoM -0.2%, YoY -4.2%) 7월 HCOB 서비스업, 종합 PMI 8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 일 7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PMI[F]	<b>6 RBA 통화정책회의</b> <b>RBA 통화정책회의</b> 유 6월 소매판매(MoM +0.1%, YoY +0.3%) 일 6월 가계 소비지출(YoY -1.8%) 독 6월 공정수주 (MoM -1.6%)	<b>7 지준일</b> 미 6월 소비자신용지수 중 7월 수출/입(YoY +8.6%, -2.3%) 일 6월 섀넥스, 동맹지수[P]	<b>8 음선간기일</b> <b>BOJ 7월 금정위 요약본 공개</b> 미 6월 도매무역 판매(MoM +0.4%) 도매채고 일 7월 경기판찰조사 전망, 현행(47.9, 47)	<b>9</b> 중 7월 CPI(YoY +0.2%) PPI(YoY -0.8%) 통화금융 M2(YoY +6.2%) 일 7월 통화량 M2(YoY +1.5%) 공작기계 수주[P](YoY +9.7%)	<b>10</b>
<b>11</b>	<b>12 MSCI 분기 리뷰</b> [휴장] 일본(산의 날) MSCI 분기 리뷰 : 지수 조정은 반기 변경(5, 11월), 분기 변경 (2, 8월)으로 이루어짐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b>13</b> 한 6월 통화금융 M2(MoM +0.0%) 7월 수입 물가(MoM +0.7%, YoY +9.7%) 수출 물가(MoM +0.9%, YoY +12.2%) 미 7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1.5) PPI(MoM +0.2%, YoY +2.6%) PPI 근원(MoM +0.4%, YoY +3.0%) 유 8월 ZEW 서베이 예상 일 7월 PPI(MoM +0.2%, YoY +2.9%)	<b>14 미국 CPI</b> 한 7월 실업률(2.8%) 미 7월 CPI(MoM -0.1%, YoY +3.0%) CPI 근원(MoM +0.1%, YoY +3.3%)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0.8%) 유 2Q GDP, 고용[P] 6월 산업생산(MoM -0.6%, YoY -2.9%) 영 7월 CPI (MoM 0.1%, YoY 2%)	<b>15 한국유망</b> 미 7월 소매판매(MoM +0.0%) 소매판매 근원(MoM +0.4%) 수입 물가(MoM +0.0%, YoY +1.6%) 수출 물가(MoM -0.5%, YoY +0.7%)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78.8%) 8월 뉴욕 제조업지수(-6.6) 플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NAHB 주택시장지수(42)	<b>16</b> 한 7월 수출/입 확정지(YoY +5.1%, -7.5%) 미 7월 주택착공건수(MoM +3.0%) 건축허가(MoM +3.4%) 8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4.5)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전망[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일 6월 3차 산업 지수(MoM -0.4%)	<b>17</b>
<b>18</b>	<b>19</b> <b>미국 민주당 전당대회(~22)</b> 일 6월 핵심기계수주 (MoM -3.2%, YoY +10.8%)	<b>20</b> 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8월 플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유 6월 건설 생산(MoM -0.9%) 7월 CP[F](MoM +0.2%, YoY +2.5%) CPI 근원[F](MoM +0.4%, YoY +2.9%) 독 7월 PPI (MoM 0.2%, YoY -1.6%)	<b>21</b> 한 7월 PPI(MoM -0.1%, YoY +2.5%) 8월 1~20일 수출/입(YoY +18.8%, +14.2%) 일 7월 수출/입(YoY +5.4%, 3.2%) 호 8월 주도은행 호주 PMI종합	<b>22 한국금통위, 연준 잭슨홀 미팅(~24)</b> <b>[한국 금융통화위원회]</b>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연 3.5%로 12차례 연속 동결. 만장일치 동결로 예상보다 매끄러웠 (2) 올해 금리 인하 시점은 8월보다 10월에 무게 <b>연준 잭슨홀 미팅(~24)</b> 한 9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비제조업 미 7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0.05) 기준주택매매(MoM -5.4%) 8월 S&P 글로벌 제조, 서비스, 종합 PMI[P] 캐나다시티 제조업 활동 유 8월 HCOB 제조, 서비스, 종합 PMI[F]	<b>23</b> 미 7월 신규주택매매(MoM -11.3%) 8월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7월 전국, 국내 CPI 영 8월 CFI 소비자자기대지수(-13)	<b>24</b>
<b>25</b>	<b>26</b> [휴장] 영국(뱅크홀리데이) 한 7월 소매판매, 백화점, 할인점 매출 미 7월 내구재 주문[P] 8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유 7월 ECB 1년, 3년 CPI 기대 일 6월 섀넥스, 동맹지수[F]	<b>27</b> 미 2Q 주택 가격 구매지수(QoQ +1.1%)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경기전망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중 7월 공업기업이익, 산업생산 일 7월 PPI 서비스	<b>28 엔비디아 실적 발표</b> 호 7월 CPI YoY 독 9월 GfK 소비자자기대지수 (-18.40)	<b>29</b> 미 2Q GDP, 개인소비, GDP 물가지수 7월 도매채고, 소매채고,미결제주택매매 유 8월 소비자, 서비스, 산업, 경기 기대지수 일 8월 소비자자기대지수	<b>30 MSCI 리밸런싱</b> 한 7월 광공업생산 미 7월 PCE 물가, 근원 PCE 물가지수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8월 MNI 시카고 PMI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전망[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유 7월 실업률 8월 CPI, CPI 근원[P]	<b>31</b>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